

1920年 前後 韓國小說에 나타난 죽음 樣相考

— 妓女의 自殺을 중심으로 —

尹 政 憲

<目 次>	
I. 머리말	樣相
II. <明月亭>에 나타난 죽음의 樣相	IV. <눈을 겨우 뜰 때>에 나타난 죽음의 樣相
III. <清流壁>에 나타난 죽음의 樣相	V. 맺음말

I. 머 리 말

일찍이 죽음은 삶, 사랑과 더불어 文學의 三大命題로 다루어져 왔으며 人生의 根本問題이기도 했다.

이들 중, 특히 ‘죽음’에 대한 人間樣相의 存在論的 認識이 확대되면서¹⁾ 작품에 수용되었던 그 양상의 변모 발전의 과정도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 근자에 이르러서는 소설 작품에 나타나는 ‘죽음의식’의 규명을 위한 의미깊은 穿鑿들이 시도되고 있다.²⁾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피엔딩’(happy-ending)을 추구하는 古小說에서 상대적으로 유보될 수 밖에 없었던 ‘죽음’의 양상이 新小說의 탄생과 함께 1910년대를 거쳐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우리 現代小說에 투영되었던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1) 이재선은 Rudolf. Unger와 R.W.B. Lewis, Theodoer Ziolkowski, R.M. Albérés 등의 말을 들어 문학에서의 ‘죽음’의 문제사적 해명을 이미 논급한 바 있으며, 이인복도 ‘죽음’을 근본적인 인간양상의 존재론적 탐구에 근거한 문학예술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재선, 한국단편소설 연구, 일조각, 1975, pp. 188~190, 이인복,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의식의 史的 研究, 悅話堂, 1979, p. 3).
- 2) 이재선, Ibid., 이인복, Ibid., 정재훈,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연구 (1976, 경희대 교육대학원).
장백일, 김동인 문학의 갈등과 죽음의 문제 (1981, 국민대 「어문학」 1집).
이유식, 1920년대 한국소설의 죽음의 결말연구 (1983, 한양대 대학원) 등 多數.

그러면 新小說의 登場 이후, 1920년을 前後한 우리 현대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實相은 과연 어떠한가?

本稿는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인간존재의 해명을 위해 죽음과 인간질살과의 관계를 露示시키고저 하는 文學의 探究의 機能³⁾에 그 근본적인 논의의 실마리를 두고 있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 本稿에서는 동일한 소재의 죽음(妓女의 自殺)을 다루고 있는 1920年 前後의 세 작품을 대상으로 그 죽음의 의미를 각기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살펴볼 〈明月亭〉은 朴頤陽이 지은 新小說로서 1912년 7월 30일, 唯一書館에서 간행되었는데 ‘허원’의 妾이 된 妓女 ‘차채홍’의 自殺을 다루고 있다.

다음의 〈清流壁〉은 1916년 玄相允에 의해 〈學之光〉 제 10호에 발표된 것으로, 남편에게 버림받아 娼妓가 된 ‘玉香’의 自殺이 펼쳐지고 있는데, 개화기 신소설에서 20년대 근대단편으로의 교량적 구실을 담당한⁴⁾ 현상문 소설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거론될 〈눈을 겨우 뜰 때〉는 1923년 〈開闢〉지에 발표된 金東仁의 대표적 단편으로, 平壤 名妓 ‘금패’의 自殺을 다루고 있다.

이들 작품들이 모두, 妓女의 自殺을 作品內에 受容하고 있다는 점은 本稿의 논의 진행상, 示唆하는 바가 자못 크다.

그것은 인간을 완성시키는 최후인자인 ‘죽음’의 양상이 왜 自殺로 표출되었나 하는 문제와 이들의 自殺과 妓女란 身分의 相關性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이행, 변질되는 죽음의 형태면에서 볼 때 신경향파 문학이 등장하는 1925년 이전의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모습은 살인 아닌 주로 自殺, 凍死, 그리고 病死의 형태였다.⁵⁾

신소설의 등장 이후 프로문학의 살인충동이 작품에 구체화되기 전인 20년대 중반까지엔 그 중에서도 자살의 결말이 가장 현저했다.

이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나 의식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자기를 스스로 약체화시켜 生의 問題를 죽음으로써 탈각하려는 소극적 감상화가

3) 이인복, Ibid., pp.11~12; 이인복은 문학의 기능을 교훈적 기능과 쾌락적 기능 이외에 작가가 힘쓰는 인간 본질에 대한 해명, 즉 탐구적 기능을 첨가한 세 가지로 설정하여 논급하고 있다.

4) 주종연, 한국 근대단편소설 연구, p.70 (81년, 형설출판사).

5) 이유식, 1920년대 한국소설의 죽음의 결말 연구(83년, 한양대 대학원).

두려워, 삶의 현장에 대결하려는 공민적 용기와 개체보호의 자주적인 사고가 결여된 탓에 나온 결과로 지적되었다.⁶⁾

주 작가들이 우리의 봉건전통사회에서 현대로 옮겨오는 과도기에 성장하고 또 작가로 출발한만큼 그들의 의식 속에서도 전통적 사고방식이 뿌리깊이 내재하여 소설 속의 인생을 자살이란 가장 편리하고도 보편적인 결말로 처리케 했던 것이다.

따라서 25년 이전에 발표된 이들 세 작품들도 환경으로부터의 소극적 자기방어로, 퇴행현상인 ‘自殺’을 공통적인 죽음의 양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는 “自殺이自我에게 향해진 사회에 대한 격노”라 지적하는 ‘팔머’의 견해⁷⁾에 따라 볼 때, 기생이란 사회적 신분과 자살과의 상관성의 측면에서 그 걸근을 가능케 한다.

또 당시 죽음양상의 한 특질이었던 ‘자살’의 모습이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표되었던 세 작품에서 시대의 추이에 따라 어떤 변모와 발전을 보이는가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추적할만한 과제이다.

II. 〈明月亭〉에 나타난 ‘죽음’의 樣相

1. ‘채홍’의 自殺

新小說 〈明月亭〉에 대한 논급은 이재선教授의 〈한국현대소설사〉⁸⁾와 서대석教授의 연구발표를⁹⁾ 제외하면 거의 全無할 정도로 이 작품은 그간 신소설 연구대상의 외곽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녀 ‘채채홍’의 자살을 다루는 이 작품에서 나타난 죽음양상은 당대인들의 사생관의 한 片鱗을 가장 효과적으로 엿보게 한다. 그것은 이미 徐教授에 의해 지적된 바처럼¹⁰⁾ 이 작품이 中國 明代의 小說 〈蔡小姐忍辱報仇〉를 번안한 번안소설이란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교수는 明末에, ‘姑蘇抱甕’老人에 의해 편찬된 단편집 〈古今奇觀〉에 실

6)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p.133 (79년, 흥성사).

7) Stuart Palmer, The Violent Society, College & University press. New Haven, Conn, p.93 (1972년).

8)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p.132 外 (1979, 흥성사).

9) 서대석, 신소설 〈명월정〉의 번안양상, ‘제19회 전국대회 발표요지’ (국어국문학 72, 73호).

10) Ibid.

린 40편 중의 하나인 <채소저인육보구>와 朴頤陽의 신소설 <明月亭>을 각각 도로 대비, 분석한 후 <明月亭>이 번안소설임을 논증하고 있다.

번안소설이란 외국소설의 줄거리를 借用해 自國風으로 改作한 作品을¹¹⁾ 일컫는 것으로 外國作品을 自國人的 生活習俗과 전통 속에 부합시키기 위해선 自國내의 적절한 장르적 모델의 설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필연적으로 외국의 원작과는 달리, 당대 자국인의 가치관은 물론 재창조된 작가의식이 변별적으로 드러나게 되며 따라서 당대인들의 죽음에 이르는 통찰과 사생판도 작품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明月亭>의 줄거리를 요약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채채홍은 남동생 상순과 함께 부모를 모시고 서울에서 여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아버지 차기문이 술로 인해 사업에 실패하자 연안으로 이사하게 된다. 이 샫집을 배에 싣고 가는 도중에 뱃사람들이 강도로 돌변하여 채홍만을 남기고 가족들을 모두 수장시켜 버린다. 두목 진치보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나머지 도둑들은 재물을 나눠 달아나고 진치보도 술이 깨자 채홍의 목을 조르고 달아난다. 죽다가 살아난 채홍은 변시복에게 구조되지만 그의 처에 의해 개성의 기생조합에 기생으로 팔리게 된다. 그러나 자기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된 채홍이 기생조합에서 순순히 말을 안 듣자 송도여인을 첩으로 삼으려 개성에 온 허주사에게 인도된다. 허주사와 더불어 上京하던 채홍은 도중에서 원수 진치보 일당을 발견하여 허원(허주사)의 도움으로 이들을 체포하게 되고 고소하여 일당을 처결한다. 이어서 채홍은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허원의 아들을 낳아서 원수를 갚게 해 준 은혜에 보답하고 德 있는 本妻의 따뜻한 보살핌까지 받아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날 관립보통학교 운동회에 구경나간 채홍은 뜻밖에도 도둑들에게 수장당한 줄 알았던 남동생 상순을 극적으로 만난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깐, 이내 채홍은 기생으로서 쫓이 된 자기 신세를 동생 앞에 드러내 보인 것을 부끄러이 여긴다. 그리고 옛날 학생 시절에 동생에게 첩노릇 안하기로 맹세한 것을 생각하고는 유서를 써 놓고 한밤에 몰래 집을 나와 한강에 투신 자살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明月亭>에 나타난 채홍의 자살은 그 죽음의 의미가 매우 약하여 作家의 意圖의 裝置에 의한 작위적 경향이 짙다.

이는 서교수의 지적에서처럼 중국의 원작 <채소저인육보구>와는 달리, 번안 과정에서 작가의 주안점이 변모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채홍이 허

11) Ibid., p. 672.

원의 철여 되기 前까지 처녀성을 지키고 있는데 반해 <채홍인옥보구>에 등장하는 祭福紅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卞福, 胡悅 등의 뜻사귀를 거쳐 朱源을 만난다는 내용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서홍’이 자살하는 것은 ‘주원’을 만나기 前의 과거 때문이란 충분한 이유가 성립되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채홍의 경우는 그 죽음의 의미가 약화되어지는 것이다.¹²⁾

여기에서 우리는 번안소설인 <明月亭>에서 변별적으로 나타나는 작가와 당대인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즉 아직까지 貞操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관념과 함께 기생계급에 대한 천시현상, 그리고 명예와 명분을 위해 칩사라 목숨을 끊는 死生觀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녀의 발생근원은 世襲妓를 제외하고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¹³⁾

첫째, 良女の 孤兒가 妓女가 되는 경우.

둘째, 부모 혹은 보호자가 빈곤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妓家에 女子를 팔아서 된 경우.

셋째, 地方官衙의 使令의 子女와 良家의 子女로서 여성 본능의 화려한 생활과 羽衣霓裳에 현혹되거나 운이 좋아 高貴宗門의 副室(妾)로 들어가면 일생을 화려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허영심에서 본인이 희망하여 된 경우.

넷째, 유교적 윤리관에 의해 정욕을 죽여야 했던 과부가 자유로운 性生活을 위해 妓가 된 경우.

다섯째, 양반의 婦女로서 淫行하여 恣女案(淫女記錄帖)에 기록되어 妓가 된 경우.

이 중에, 첫째와 둘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적 환경에 의해 妓女가 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세 경우는 자발적 의지에 의해 妓籍에 오른 경우이다.

<明月亭>의 ‘차채홍’은 첫 경우에 속하므로 자기의사와 무관하게 妓生이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多福한 女學生이었던 채홍이 이사도중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되어 진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妓女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他意에 의

12) Ibid., p. 675.

13) 玄文子는 李朝妓女の 발생에 대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다.
; 玄文子, <妓女考>, 동아대학교 대학원(1967년).

해 이뤄진 신분결정은 당대의 가치관에 비춰 볼 때 채홍을 죽음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다.

2. 죽음의 의미—名分の 죽음

〈明月亭〉의 줄거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채홍의 自殺은 현실적인 죽음의 의미가 매우 약하여 자살의 논리에 있어 그 동기가 필연성 내지 충분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자기희사에 反해 기생으로서 남의 쫓이 되긴 했지만 自殺 직전, 채홍의 현실은 행복이 충만한 상태였다.

신문명에 일찌기 눈을 뜬 개화인으로 누구보다도 채홍을 사랑하는 지아비 허원과 쫓인 채홍을 투기하지 않고 따뜻이 감싸는 이해심 많은 本妻, 그리고 자식 없던 허씨가문에 채홍이 들어와 낳은 그녀의 아들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기생으로서 첩이 되었다는 자기신분에 대한 열등의식과 下向된 身分에의 罪意識이 채홍을 死地로 물고 가는 직접적 원인이며 이는 현실적인 타당성을 부여받기보다 어디까지나 명분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채홍의 자살은 기생과 첩됨을 비판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동생에게 한 명세를 실천에 옮기기에 불과한 名分論的 죽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아 나는 부모가 강제로 무식한 야만에게 시집보내거나 또 남의 첩을 주거든 죽어도 그런 명령은 봉승치 아니하려느냐 하는 말씀에 일어섰다……”¹⁴⁾

위의 인용은 채홍이 女學生時節에 남동생 ‘상순’과의 對話 도중 한 언약으로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이끄는 직접적 동기로 성장하는 문제의 발언이다.

이러한 단호한 결의에 걸맞게, 불가피한 외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 자신의 신분(천한계급—기생, 첩)에 대해 처음, 채홍이 취하는 태도는 거부 일변도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는 번시복의 처에 의해 300원에 팔려 기생조합에 넘겨졌을 때의 채홍의 반항적 자세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놈들의 영업은 참 못하겠소. 일전에 삼백 원 들여 데려온 계집은 말하는 병

14) 울유문화사, 한국신소설전집(卷六), p. 118.

어리요 적지게 내의는 하고 외모 아깝게 내숭스럽고 독하여서 저희 기생들끼리 조조 화룡도 빌 듯 천만 가지로 달래고 우려도 한 모양이기에 심지어 잔채질하여도 무가내하니 이런 기막힌 일이 있소? 속담에 열 번 적어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없다 하기에 연주회 광고할 때마다 인력거 태워 마뽀님 시켜도 그 식이 장석이니 차 소위 소 잃고 송아지 웃질 치는 격이야요, 가만히 홀리본죽 제맛은 창기 타탕은 아니고 써있는 제집인데 어찌하여 그리 되었는지 말 아니하니까 모르거니와 외모도 푹푹하고 여간 글자도 있는 모양이라.....¹⁵⁾

채홍이 기생으로의 변신에 항거함으로써 골치를 앓고 있는 기생조합소 조장의 푸념이다.

이러한 채홍의 기생의 계급에 대한 인식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라 당대인, 나아가서는 작가의 인식의 結晶이기도 했다. 이는 채홍을 달래는 동료 기생들의 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네들도 이리 되누라니 산전수전 다 겪었지, 누구라 기생 노릇 하기를 즐겨할라구? 팔자가 글러 이 지경이지 수원수구하리? 차 소위 절에 간 색시지, 하자는대로 할 거야.”

— 중략 —

“여보 파부 설움은 등무 파부가 안다고 이년도 부모 하탈문 입밖에 떨어질 때에 이 모양 되라면 진작 죽지 않고 살았다가 하구밖은 생선에 복생선으로 이천한 기생이 되어 뭍쓸 형벌 벌벌 트집 받아가면서 가사(歌詞) 한 장, 시조 점수 배어놓고 보니.....”¹⁶⁾

하나같이 자기 신분에 대한 劣等感과 不滿을 吐露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천한 신분으로의 下向에 강한 저항을 보이던 채홍이었지만 허원을 만난 後 그의 開化된 性品과 폭 넓은 인간미에 이끌려 그녀가 처한 신분의 세계를 일단 받아들인다.

그리고는 자식이 없던 허원의 아들을 낳아 줌으로써 더욱 파스해진 현실 속의 짐차 安住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채홍의 갈구는 갑작스레 등장한 동생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잠시나마 그녀의 가슴 깊숙이 잠재되어 숨어 있던 身分意識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는 곧 동생에게 한 맹서와 직결되는 것으로 고민하던 채홍을 끝내 死地

15) Ibid., pp.108~109.

16) Ibid., p.112.

로 물고 간다.

熱氣에 끓던 學生時節의 장담은 동생 앞에 내보인 자기 신분을 수치로 받아들이게 하고 이러한 수치스런 신분을 죽음으로써 벗어나야한다는 명분의 논리가 그녀의 위신을 세우는 데에 작용된다.

하루는 채홍이 심히 조용한 밤을 타서 혼잣말로

“내가 이제는 가슴에 맺히고 서린 슬픔을 다 풀었지마는 나의 일신상의 명예와 흠점이 이 세상에서 살고서는 씻을 수 없으니 이리 할 밖에 없다.”하고...¹⁷⁾

이러한 명분의 죽음은 고소설에서 보이는 전근대적 징벌로서의 죽음과 상통하는 것으로 이 작품이 시기적으로 古小說과의 연계선상에 있는 新小說이란 점에서 露呈되어지는 古套로 보인다.

즉 채홍의 명분의 죽음을 유도한 배경의 근거에는 贖罪와 自己潔白을 증명하는 최고수단이 자살이라는 한국인의 전통적 사고방식이 內在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說話나 조선조 소설에서 자주 보인 모티브였고 과거의 전통사회에서 자주 있었던 일로, 치욕적인 누명을 벗을 길이 없을 때 쉽게 택한 결벽증명의 방법이었다. 고의적이었던 피치못할 사정이었던 일단 어떤 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잘못의 결과가 와서 깊은 悔恨과 罪意識에 빠질 때면 곧잘 한국인, 특히 여인들은 자결로서 속죄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았던 것이다.¹⁸⁾

또한 채홍의 죽음은 현실적인 바탕이 부족한 단순한 명분상의 죽음인만큼 죽음을 초래하는 내적 갈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실에 점차 安住해가던 그녀가 동생의 등장으로 갑작스레 죽음을 결심했으므로 그간의 갈등이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죽음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징적인 의미에서 볼 때 채홍의 죽음이 밤에 이뤄진다는 것은 밤의 고독감과 카오스적 보편상징¹⁹⁾에 미루어 볼 때 한강에 투신하는 이미지의 상징성과 더불어 하강적 의미의 죽음²⁰⁾으로 파악된다.

17) Ibid., p.149.

18) 이유식, 1920년대 한국소설의 죽음의 결말 연구, p.40(한양대 대학원 1983년).

19) 이재신, 한국현대소설사, p.133; 즉 어둠이 나타나는 패배, 절망, 암흑의 이미지를 말한다.

20) 명형대, 동인소설의 죽음연구, p.16 (부산대 대학원, 1976년).

; 질서를 깨뜨리고 타락과 불행의 부정적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下降(decent)이라 했을 때, 채홍이 허원의 행복한 가정이란 질서를 깨뜨리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Ⅲ. 〈清流壁〉에 나타난 ‘죽음’의 樣相

1. ‘玉香’의 自殺

1916년에 발표된 현상윤의 〈清流壁〉에는 玉香이란 妓女가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의 玉香은 이미 현상윤 작품의 기성연구²¹⁾에서 논의된 바처럼 현실 인식에 입각한 경험적 사실성을 추구하는 現實的 人物이다.

李人植에서 비롯되는 근대 단편의 명맥을 金東仁, 廉想涉, 玄鎮健 등 20년 대 작가들에게 連結시켜 주는 교량적 구실을 담당한 작가로 평가되는 小星 玄相允이었던 만큼 그의 작품들은 당시의 통속 신소설과는 구분되게 현실 인식에 투철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직껏 구태의연한 常識性과 通俗性의 古套를 벗지 못하고 있던 新小說들에 비해 현상윤의 소설은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개척적인 면 고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본고의 대상인 〈청류벽〉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逆進的 時間構成, 冒頭의 破格性, 對話와 지문의 明瞭한 區別, 表題의 豫示性 止揚等 여러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청류벽〉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으로 대두되는 것은 ‘玉香’이란 現實的 人物의 出現이다.

여기서 〈청류벽〉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자.

황해도 재령당에 살던 김선달의 딸 ‘永恩’은 인근 안악읍 이과부의 아들 成道와 결혼하여 夫婦가 된다. 그러나 얼마 후 시어머니의 他界로 행복했던 신혼의 금은 깨어져 버리고 남편 성도의 방탕에 접하게 된다. 그리하여 끝내는 남편에게 버림받아 淸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재령군 주사토와 있던 평양 사람 ‘황석보’의 妾이 된다.

그러나 황주사가 임기를 마치고 평양으로 전근되어 돌아 오게 됨에 따라 本妻

이유 없는 명분의 죽음을 택함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으므로 下降的 意味의 죽음으로 볼 수 있다.

21) 김기현, 현상윤의 단편소설, 문학과 지성(72년 겨울호).

김학동, 소설 현상윤론, 어문학 27, (72년, 한국어문학회).

주중연, 현상윤의 단편소설,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연구〉, pp.69~91 (81년, 형설출판사).

김현실, 현상윤의 단편소설 연구, 제28회 전국대회발표요지, 국어국문학 93, (85년, 국어국문학회) 등.

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황주사는 자기 점이었던 ‘영은’을 평양 사창가의 ‘降仙館’에 몸값 300원에, 5년 기한의 창기로 팔아 버린다. 良家에서 자란 영은에게 ‘강선관’의 창기생활이란 차마 못할 고된 것이었다. ‘玉喬’이란 기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영은에게 어느날, 비로소 전날의 罪過를 뉘우친 성도가 찾아온다.

그리고 어떤 수를 쓰든지 옛 아내의 몸값을 갚아 자유로운 ‘영은’과 못다한 행복찬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서로운 희망에 가슴부푼 영은에게 몸값 300원의 경제적 한계를 끝내 극복하지 못한 성도의 눈물어린 하소연이 전해지고 영은으로 하여금 이제 자기는 이러한 고통의 굴테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케 한다. 실낱 같은 마지막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힌 영은은 마침내 생의 지표를 상실하고 어느 가을밤 몰래 ‘강선관’을 빠져나와 대동강 청류벽에 몸을 던진다.

이상에서와 같이 <청류벽>에 등장하는 ‘玉喬’의 자살은 현실 속에서 굴복하는 나약한 한 女性의 죽음일 뿐이다.

현실적인 죽음의 意味가 弱했던 <명월정>에 비해 <청류벽>에선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玉喬의 죽음 논리가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永恩이 妓女 ‘玉喬’이 된 것은 註 13)의 두 번째 경우에 속하므로 역시 자기의지와 무관하게 신분이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명월정>의 ‘채홍’처럼 자기의사와 관계없이 妓女가 된 ‘玉喬’에게 있어 죽음에의 요인은 어떻게 달리 작용되고 있는지 玉喬의 죽음의 의미를 통해 알아본다.

2. 죽음의 의미—現實의 죽음

妓女 玉喬이 된 永恩의 自殺은 ‘채채홍’의 경우와 같이 他意에 의해 거너가 된 사례이지만 그 죽음의 性格은 판이하다.

妓女란 社會的 身分이 賤한 계급의 가치대상으로만 인식되어지는 <명월정>에 비해 <清流壁>에서는 고통에 찬 하나의 현실적 직업으로 대두된다.

이제까지 되지도 못한 존작자의게 別야단을 다받던 玉喬이는 겨우 몸을 쉼여나서 허순허순 느껴진 웃고름을 다시 조려대면서, 맥업시 바람을 지고 쓰러져 안는다.

“아이고 이노릇을 언제야…” 하면서 혼자말도 한숨을 지우며, 쓱쓱 뒹는 가슴을 가만이 집코 마음업시 床머리에 누려져 잇는 電燈을 바라보고 있다.²²⁾

22) 학지광, 10호, p.337.

그러나 이것이 엇지 永恩이의 하고싶혀 하는 酬酢이며 웃고싶혀 웃는 우숨이리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늙은이 젊은이 할것 업시 고은이 미운이 할 것 업시 雜놈 전달놈 할 것 업시 빗圓 돈만 주논놈이면 달너드러와 시달니며 놀니고 마을에도 업는 낙악이를 남웃기기 爲하야 하지 안올 수 업고 하기도 실은 노래를 남의 즐거움을 사기 爲하야 불외지 안올 수 업스며…中略…이것을 엇지 生命있는 생이라 하며 이것을 엇지 價値있는 목숨이라 하리오. 아~ 사람 한 世上이 이다지 괴로우며…中略…“사람의 八字가 이럴테가 왜 잇을고!”하고 속잡히 흐트여 나오는 설움에 “이놈들 그럴테가…”하는 冤망은 좁은 가슴에 하로 이를 사모차 가더라.²³⁾

위의 引用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옥향에게 있어선 娼妓란 직업 그 자체가 죽기보다 더 괴로운 현실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통의 현실을 속히 벗어나려 애쓰며 “다시 오는 歲月에 좋은 運數를 바라리라 하는 생각에 조금 마음을 돌려 하루 이를 혀를 물고 차마 못할 일 차마 못할 행동을 지긋 지긋 참아 지내는”²⁴⁾ 玉香의 忍苦는 실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그러던 玉香에게 참고 지내던 고통의 세월을 보상해 줄 수 있는 희망의 계기가 마련된다. 罪過를 꾸우친 남편 成道가 구원의 손길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300원이란 몸값은 성도에겐 너무 큰 부담이었다.

결국 妓女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玉香의 所望은 좌절되고 만다. 기대가 컸던만큼 옥향의 낙망은 더 할 수 없이 뼈저린 것이었다. 고통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봉쇄되어진 후 玉香이 생각하게 된 것은 죽음 뿐이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現實을 脫出하는 길은 죽음 뿐이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죽음을 유발로록 한 玉香의 現實은 죽음에 임하는 玉香에게 葛藤의 樣相으로 나타난다.

“그래 나는 벌써 죽어 썩년이로다. 다시 무엇을 바래고…”

—中略—

樂이라고는 半分어치업고 생기는 것이 苦生뿐인 八字에……中略…죽는 것이 上策이다.”

하고 와락 니러서서 길섶헤잇는 바우우에 올라가선다. … 險한 絕壁은 까닭업시

23) Ibid., p.340.

24) Ibid., p.339.

비죽비죽 나를 嘲笑하는 듯하고 발악해 울굴굴 흘러가는 푸른江물은 속절없이 千古의恨을 알외는 듯한데, 멀리 안개속으로 稀微하게 보이는 中和海鴨山은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서있는 듯하고 殘殘한불빛만 여겨져괴 반짝이는 平壤城中은 무슨 惡魔가 입을 버리고 나를 向하여 다가오는 것 같치 보인다.

“아아 自然아 나를다러다주렴—아모꿈로움업고 拘束업는 님잇는곳에…아이고 나를 노아만주렴 노아만주어—”하고 여러가지 일과 여러가지 形便을 생각하다가…²⁵⁾

이렇게 玉香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죽게 한 현실 속에서 경미한 갈등을 일으킨다. 이는 그녀의 자살이 철저히 현실적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小說이 葛藤樣相의 尖統化를 통해 작품 속에 의미있는 죽음을 具現하고 있음을 볼 때, 玉香의 죽음은 아직까지 많은 未熟性을 內包하고 있지만 <명월정>의 ‘채홍’의 죽음보다는 한결 현실적인 갈등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재래적 가치와 믿음이었던 명분적 도덕률을 문학작품에 있어 이미 경험적 현실세계와의 不調和를 이루는 相關物로 파악한 作者 玄相允의 남다른 현실인식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作品 속에선 현실이 낙관적이든, 절망적이든 현실세계를 정면으로 응시하여 수용하게 되는 사실추구의 美學을 엿볼 수 있다.²⁶⁾ 그리하여 등장인물들은 더 이상 명분과 헛된 이상을 좇는 허위적 인물이 아니며²⁷⁾ 현실 속에서 고민하다 순응, 좌절하는 현실에 바탕을 둔 經驗의 個我적 현실적 인물들이다.

그의 눈에 비친 당대—日帝下—우리 민족의 객관적 현실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悲劇의 生이 작품 속에 제시된 것은 당연했다.

이러한 비극적 세계인식은 현실 속의 自我로 하여금 실제 구체적 세계의 諷포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더 이상 우연이나 재래적 도덕률에 얽매이지 않고 절망적 현실세계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수용하도록 하는데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하여 이를 인식한 현실 속의 자아는 그 결과 살인 또는 소극적 반항의 양태인 자살의 자기파멸적 자세를 보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25) Ibid., p. 342.

26) 玄相允은 <청류벽> 以外에 <薄命>, <恨의 一生>, <逼迫> 등의 作品에서도 새로운 현실인식에 입각한 경험적 사실성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27) 주중연 교수는 이를 “典型的 人物의 止揚”이라고 말하고 있다.
; 주중연, 한국 근대 단편소설 연구 (81년, 형설출판사).

따라서 玉香의 自殺은 이러한 見地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징적 의미에서 살펴 보면, 玉香의 죽음 역시 밤중에 청류벽에서의 투신자살로 나타나지는 이미지의 상징성과 더불어 가치개념상 하강적 의미의 죽음으로 파악된다,²⁸⁾

Ⅳ. <눈을 겨우 뜰 때>에 나타난 ‘죽음’의 樣相

1. ‘금패’의 自殺

‘금패’는 金東仁의 短篇 <눈을 겨우 뜰 때>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서 역시 기생이다.

그녀는 <明月亭>의 車采虹이나 <清流壁>의 玉香과는 달리 어릴 때부터 妓生의 화려한 生活을 憧憬하여 自意的 意志로 妓女가 되었다. 따라서 이는 註 13)의 3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패의 妓女에 대한 자부는 대단한 것이다.

그녀가 동경하여 스스로 선택한 위치인만큼 자기직업에 대한 아이덴티티(identity) 認識은 적요하고도 自矜스러운 것이었던 것이다.

이런 금패에게 自己正體에 대한 懷疑를 일으키게 하는 事件이 일어난다. 즉 벗들이 나갔다가 女學生들로부터 自身の 自存心을 심히 손상시키는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이다.

여기에서 자기자신에 대한 진정한 自我를 自覺하게 된 금패에게 있어, 손님 ‘A’와 청류벽에서의 소녀의 죽음은 그녀의 뇌리 속에 彼岸의 새로운 生으로서의 죽음의 世界를 심어놓게 한다.

그러하여 금패는 겁쟁이만 화려했던 自身の 虛像으로부터 과감히 脫出하여 眞正한 自我로 回歸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대동강 강변의 요란하고 화려한 축제를 배경으로, 이와는 대조적인 人生의 本質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自意로 妓女가 된 금패의 죽음의 의미를 다음에서 자세히 糾明해 보기로 한다.

2. 죽음의 의미—自己回歸의 죽음

앞서 언급했듯이 금패는 平素에 妓女란 職業을 憧憬하여 自己의 所望을

28) 註, 19), 20) 참조.

이룬다.

그는 쾌활한 성질이었다. 여덟 살까지 속곳만으로 길에 나와서 사내애들과 싸우던 것도 아직 그의 기억에 남아 있는 바이다. 아홉 살에 그는 기생의 빛나는 살림을 그리어 기생 서재에 붙여 달라 하여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열 네 살 시사 할 때까지 그는 기생의 일반 재주에 그다지 남한테 지지 않게까지 되었다.²⁹⁾

이와 같이 어쩔 수 없는 玩寶이 他律的으로 그녀의 身分을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금패의 妓女觀은 훌륭하고 멋있는 직업으로서의 그것이다.

여학생이라는 것이 차차 번하여졌다. 전에는 서른 살 이상의 늙은 여학생들이 많더니 차차 어린 여학생이 보이게 되었다. 그와 함께 여학생의 품조가 차차 사치하게 되었다. 금패는 이것을 “여학생이 기생을 본받는다.” 부르고 이진 자의 쾌락을 맛보는 마음으로 이를 보았다.

노새 짊어서 노세

늘어지면은 못 노느니

이 노랫가락 한 구절은 그의 가장 즐기는 노래이었다. 때때로 여학생들이 기생을 경멸하는 것을 볼 때에는 그는 분하기는 커녕 도리어 통쾌하였다. 그들(여학생들)은 자기네 기생과 같이 마음껏 <거드려거리>지 못하므로 시기함이라. 금패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노래하라, 놀라, 웃으라, 즐기라, 거드려거리라 하여 끝까지 젊음을 즐기려 하였다.³⁰⁾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금패에게로 향한 여학생들의 조롱은 가히 衝擊的이었다.

“웃이나 잘 넘으면 될 해, 너 이제 살년만 더내 봐라. 레것들의 꼴이 뭐이 되나 더쳐 시집두 듯 가구, 구주주하게……”³¹⁾

자기네의 이 뒷살림은 과연 여학생들의 말과 같이 구주주할까? 금패는 그것을 똑똑히 생각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에 순서 없이 몇 가지의 생각은 저절로 그의 머리에 지나갔다. 찹, 병, 매음, 매, 본마누라, 싸움 이것이었다. 자기네의 앞에 막혀 있는 그림자는 이것이었다.³²⁾

비로소 그동안의 自身の 헛된 삶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는 이러한 삶으

29) 金東仁全集 V.5, 눈을 겨우 뜰 때, p.148 (三中堂, 1976).

30) Ibid., p.148.

31) Ibid., p.147.

32) Ibid., p.150.

로부터의 돌파구를 모색케 된다. 그리하여 前에 자신이 경험한 ‘A’의 죽음—금패를 사모하던 가난한 者의 凍死—에서 모종의 示唆를 받게 된다.

즉, 그녀의 現存在의 時間 構造 속에 不安으로서의 죽음 곧, 未來의 時間이 內在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현재의 헛된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자신의 삶을 되찾고자 번민케 되는 것이다.

이 일이 있는 뒤에 금패의 마음은 크게 변하였다. 그리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금패는 두 가지 일을 깨달았다. 첫째는 사람의 앞에는 <죽음>이라는 커다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금패 자기의 앞에도 그것은 확실히 있었다. —中略—

또 둘째는 이 세상에는 <돈과 멋> 밖에 <참과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³³⁾

금패는 그녀의 사회적 자아—妓女로서 호화스런 鎧生活을 영위하는 자각치 못한 자아—와 본래적 자아와의 갈등에서 ‘A’의 죽음을 통해 잃었던 진정한 본래적 자아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하여 죽음 속에서 본래적 자아의 회복을 추구하던 금패의 內的 葛藤은 고통과 절망과 회의로 그녀의 삶을 칼질해 뒤흔들어 놓게 되고 때마침 손님들과 어죽놀이 갔다가 목격하게 된 16세 소녀의 청류벽 落死는 이러한 그녀의 意識을 더욱 구체적으로 加速化시킨다.

즉, 그녀가 목격하게 되는 죽음들은 그녀 자신의 삶에 牽引力을 가지며 夢中의 상태에서처럼 그녀를 향해 유혹의 손길을 뻗치게 되는 것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한참도 이루지 못하였다. 아까 그 계집애의 죽음에서 시작된 그의 머리는 몇 해 전 자기에게서 쫓겨나가서 길가에서 얼어죽은 ‘A’며 자기와 친하던 기생 몇의 죽음……술좌석에서 갑자기 뇌일혈로 거꾸러져 죽은 ‘N’이라는 손님의 죽음을 순서 없이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죽음> 그것은 무섭지 않다.

그러나 이를 생각하며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고……

이리하여 그의 머리에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성장하기 비롯하였다.³⁴⁾

小説은 葛藤(Conflict)의 文學的 形象化이며 갈등이 소설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룬다고 할 때³⁵⁾ 이 작품에서 금패의 죽음에 임하는 內的

33) Ibid., p.149.

34) Ibid., p.161.

35) 張伯逸, 金東仁文學의 葛藤과 죽음의 문제, 어문학 1집, p.63 (국민대, 81년).

葛藤의 대립적 구조는 自己回歸란 人生的 本質的 죽음을 다루는 만큼 상당히 예각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금패의 삶의 인식은 수 많은 죽음을 목격하게 됨으로써 더욱 강렬하게 삶의 의미를 인식하게 되고 삶에 대한 내적 갈등으로부터의 회피는 결국 죽음(自殺)을 동경하기에 이른다. 그러던 어느 날, 단오 그네놀이를 하던 그녀는 높이 솟아올라 그네에서 손을 놓음으로써 생의 고뇌를 극복하고 진정한 自己回歸를 이루게 된다. 無視와 蔑視, 侮辱이 빛은 正體喪失에서 비롯된 自覺이 결국 어린 妓女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어 眞正한 自我를 되찾도록 한 것이다.³⁶⁾

따라서 妓女란 身分의 現實은 금패가 自覺하고 죽음으로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되찾게 되는 重要因子로 작용하고 있다. 그녀가 妓女로서의 그녀의 신분과 직업에 대한 모욕적인 조롱을 받음으로써 그녀의 위치를 되새김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당시의 현실은 1894년 갑오경장 후 妓女를 관장하던 掌樂院의 有名無實화와 함께,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곤궁한 生活을 하던 妓女들이 다시 조직의 체제 속에서 活性化를 도모하여 이를 정착토록 한 단계에 처해 있었다.

즉, 1915年頃 宋秉畷이 平壤妓를 중심으로 조직한 茶洞組合을 효시로 모든 기녀들은 좁고 배고픈 방황에서 벗어나 妓女組合의 체제 아래 受容되었다. 그러다가 京城에 日本妓를 공급하는 券番이 생겨나자 이에 따라 ‘권번’이라 칭하면서 券番式의 경영을 하게 되었다.³⁷⁾ 권번식의 경영이란 권번에 소속된 妓로 하여금 가무음곡을 익히게 하여 영입허가증을 얻게해 官에 등록 후 營業을 하게 하고 各者 稅金을 내도록 한 것을 말한다.³⁸⁾

따라서 1923년에 발표된 <눈을 겨우 뜰 때>에 등장하는 금패는 작품중 女學生들의 조롱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아직 一般的 先入見의 여지는 있으나 천한 신분으로서의 인식보다는 前代에 비해 安定된 生活을 누리는 하나의 당한 職業人인 것이며 이는 그녀가 스스로 동경하여 取한 개별적 직업이라

36) 장석일, Ibid., pp.79~80 參照.

拙稿, 김동인 단편소설 연구, pp.17~18 (영남대 대학원, 84년) 參照.

37) 근자에, 金允植은 <券番>을 엄연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기생’의 역할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金允植; 春風, 東仁, 橫歩의 妓生論 p.429, 月刊朝鮮 86년 4월 호).

38) 玄女子, op. cit, pp.39~40 參照.

는데서도 대변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이 自己回歸的 죽음, 즉 人生的 본질적 죽음을 다루며 내적 갈등이 심화된, 보다 고차원의 죽음의식을 發現하고 있는 것은 일찌기 <創造>誌를 통해 西區 自然主義와 寫實主義의 영향을 受容했던 金東仁의 代家的 資質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삶→갈등→죽음”의 패턴을 보인 근대 장편소설의 영향과, 죽음의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世界文學에서 얻은 교양과 독서체험 등이 죽음의 의미공간을 보다 심화 확대하는데 이바지한 것이다.

이렇게 심화, 확대된 죽음의 의미는 “肉體의 成熟은 죽음으로 통하며 완전한 것은 죽음을 원한다.”³⁹⁾는 관점에서 볼 때 “삶을 떠나는 계기가 되고 오지부동한 테두리에 갇혀있는 삶을 動的인 힘으로 변모시키는 수단”⁴⁰⁾이란 지적을 확증시키는 데에 나아가고 있다.

한편 상징적 의미에서 볼 때 금패의 죽음이 한낮에 그베의 날아오름과 함께 이뤄졌다는 것은 상승적 의미의 죽음으로 해석되어진다.⁴¹⁾ 이는 그베의 가벼움과 飛翔의 이미지로 획득하게 되는 가치인식상의 상승적 의미로서 自己回歸的 죽음이란 至高한 죽음을 일컫게 되는 것이다.

V. 맺 음 말

이상 姣女의 自殺을 다루고 있는 1920년 전후의 세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을 대비 고찰한 결과, 각기 명분적 죽음, 현실적 죽음, 자기회귀적 죽음으로 나눌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죽음이 지향하는 상징적 의미에 따라 상승적 혹은 하강적 의미의 죽음으로 歸着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姣女란 身分과 죽음의 관련성에 있어선 세 작품 공히 그 상관성이 드러나지만 죽음을 이루는 內面的 力動性에 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9) Norman, O. Brown <Life against death>, p.108.

40) R.M. Albérès <L'Aventure intellectuelle du XXe Siècle>, 정명환 譯, pp. 43~44.

41) 명형대, op. cit., p.16.

질서의 회복과 부활의 긍정적 행위로 나타나 善의 상태에 도달케 되는 일련의 과정을 上昇(ascend)이라 했을 때 ‘금패’의 죽음은 잘못 인식한 허위의 질서(姣生으로서의 화려한 生活)에서 벗어나 진정한 自我를 찾은 것이므로 질서를 회복하고 죽은 뒤 부활을 志向하는 상승적 의미의 죽음으로 볼 수 있다.

즉, 〈明月亭〉의 채홍이 현실적 논리적 타당성 위에서라기보다 단순히 妓女란 身分 때문이라는 外面的 상관성에서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이나 〈清流壁〉의 옥향, 역시 기생이 처하게 되는 현실적 고통에서 죽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내면적 갈등이 단순하다는 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눈을 겨우 뜰 때〉의 금패는 기녀란 그녀의 신분이 조통을 받고 자각할 수 있는 도구적 위치로 선정되어져 내면적 죽음의 갈등이란 심연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채홍’에서 ‘옥향’을 거쳐 ‘금패’에 이르는 各人物의 登場은 유형적 성격에서 점차 내면화되어 가는 ‘캐릭터’(character)의 변형을 露呈시켜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분사회가 빚어낸 개인의 비극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의 개인의 좌절로 바뀌어지고 이는 다시 영원회귀를 지향하는 世俗的 삶의 拋棄를 통해 迷惑한 의식에서 깨어나려는 個我的 覺醒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妓女가 되는 다섯 경우 중 他意에 의한 두 경우와 自意에 의한 경우가 시기적으로 차례로 작품에 나타난 것은 앞서 밝힌 바처럼 점차 조직의 체계화 속에서 妓生이 한 몇몇한 직업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좌인 동시에, 당시의 작품들 속에 妓女들이 등장하여 그들의 죽음과 같은 인간의 본질내적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社會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의 한계가 점차 넓혀져 가고 있다는 사회적 성격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끝으로 本稿가 妓女의 自殺을 다룬 1920년 전후 소설의 죽음 양상을 규명하는데, 보다 광범한 논증성을 획득하려면 본고의 대상인 세 작품의 영역에서 벗어나 여타 작품에까지 의미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의 보완이 따라야 할 것으로 想定되는 바, 이는 後稿로 미룬다.